

## 부천 지역 주부의 식문화 의식과 가사행동과의 관계<sup>+</sup>

고 경 회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  
(1999년 3월 24일 접수)

##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Consciousness of Housewives and Their Attitude of Households<sup>+</sup>

- in Puchon City -

Kyung Hee Koh

Major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March 24, 1999)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nderstanding of dietary consciousness and define the relationship of housewife attitude of middle class residence in Puchon cit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282 housewives in Puchon city. Data were analysed with SAS software package for F-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food related purchasing place was supermarket(91%), ordinary market(77%), department store(68%), special store(58%), common purchase(37%), convenience store(22%) and communication marketing(13%). The clothing purchasing place showed in the order of department store(71%), special store(65%), ordinary market(52%), common purchase(23%), supermarket(18%), convenience store(15%) and communication marketing(10%). Dietary consciousness of housewife on foods, clothing, and housing related item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specially 20's housewife was concerned about foods and 30's housewife was housing( $p<0.05$ ). The behavior consciousness of housewif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ge, education level, family type and income( $p<0.05$ ). Highly educated housewife showed a tendency to spend money and times for food related fields, and to buy clothes in a department store for breaking stress( $p<0.05$ ). However, low education level and extended family type housewife got more conservative consciousness on traditional fermented food making( $p<0.05$ ). Most of young housewife answered that the making of bread, cookies, soybean paste soup, children clothes and handicraft led to positive consciousness( $p<0.05$ ). Especially high life satisfaction housewife preferred to make a dosirak(lunch box), dinner, children clothes and handicraft( $p<0.05$ ).

### I. 서 론

인간생존의 조건으로 의·식·주를 품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문화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생활 조건에 기교와 관습을 보태어온 전통으로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활동에 힘을 제공하는 기본으로서 음식

은 세가지 조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요소이다. 어떤 경우에 어떤 식품을 먹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갖는 문화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식품은 문화적인 소산이며 식문화와 사회형태와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하고 있다.

근년,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은 큰 변화가 왔으며, 가

<sup>+</sup> 본 연구는 1998년도 가톨릭대학교 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내의 의·식·주 생활이 다양화 되어지고 있다. 고령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 되어가고 있으며 가정생활의 상황이 이전과 달리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현대 가정생활은 외식산업, 기성복의 이용이 늘어나서 간편성, 신속성, 기호성을 추구한다. 가정 내에서 요리 및 의류의 수작업 행동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주부의 사회진출이 증가하여 간편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생활의 변화는 곧 주부의 의·식·주생활에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가져오므로, 가정생활의 기술과 경험에 관한 연령별 연구와 가사 행동의 실태와 의식을 다면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나라 의·식·주 생활의 변화 방향을 비교하는데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 II. 연구대상과 방법

본 조사는 부천시의 5개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구에서 70명씩 350명을 임의 추출하여 질문지 자기 기입법으로 실시하였다. 회답은 282명으로 회수율 81%이었다. 조사한 주거환경의 생활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은 비교적 젊은 편으로, 인구는 약 793천명으로 교외 밀집 중소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기본 속성 10항목, 의·식·주 생활에 관한 행동의식 27항목, 구매행동의 실태와 의식 30항목으로 총 67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1997년 11월에 부천시의 고강동, 괴안동, 역곡동, 중동, 상동의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 III. 통계처리

수정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각 문항 통계자료는 평균±표준오차 및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각 항목과 관련성은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주부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학력, 가족수, 가족형태, 수입, 직업 등에 대한 기본 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연령별로 30대 92명(32.6%)과 40대 92명

&lt;Table 1&g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A. Age(housewife)	20~29	47(16.7)
	30~39	92(32.6)
	40~49	92(32.6)
	50 <	51(18.1)
B. Age(husband)	20~29	20( 7.1)
	30~39	95(33.7)
	40~49	94(33.3)
	50 <	73(25.9)
C. Education Level	Below middle school	17( 6.0)
	High school	171(60.7)
	College	94(33.3)
D. Number of Family (person)	1~2	39(13.8)
	3~4	186(66.0)
	5 <	57(20.2)
E. Family Type	Nuclear	243(86.1)
	Extended	39(13.9)
F. Family Income (thousand won)	500~ 999	6( 2.1)
	1,000~1,499	39(13.8)
	1,500~1,999	77(27.3)
	2,000~2,499	79(28.0)
	2,500~2,999	33(11.7)
	3,000 <	48(17.0)
G. Occupation	No job	173(61.6)
	Part or full time	108(38.4)
H. Own Car Possession	Yes	23(83.0)
	No	48(17.0)
I. Spent Leisure Time	Clothing	6( 2.1)
	Food	22( 7.8)
	Living	13( 4.6)
	Family	46(16.3)
	Friend	41(14.5)
	Leisure	137(48.7)
	Others	17( 6.0)
J. Residence	Own house	5(18.1)
	Own apartment	16(58.9)
	Rented house	3(10.6)
	Rented apartment	25( 8.9)
	Others	10( 8.5)
K. Degree of Life Satisfaction	Disagree very much	5( 1.8)
	Disagree	18( 6.4)
	Don't care(don't know)	92(12.8)
	Agree	36(12.8)
	Agree very much	131(46.5)

(32.6%)가 가장 많으며, 학력은 고졸이 171명(60.7%), 대학졸업 이상은 94명(33.3%)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 243명(86.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100만원 이상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173명(61.6%), 자가용 소유자는 234명(83.0%)이었다. 여가시간은 137명(48.7%)이 레저로 보낸다고 하였으며 아파트 소유자는 166명(58.9%)을 차지하고, 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고 131명(46.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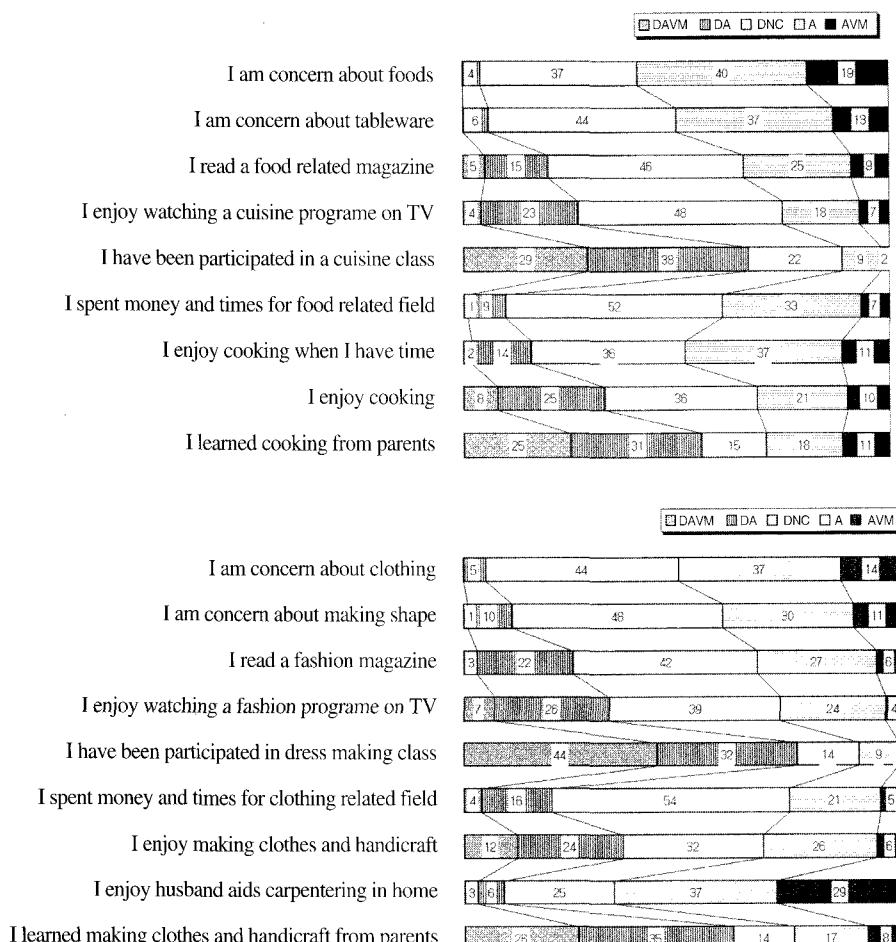
## 2. 일상의 가사행동과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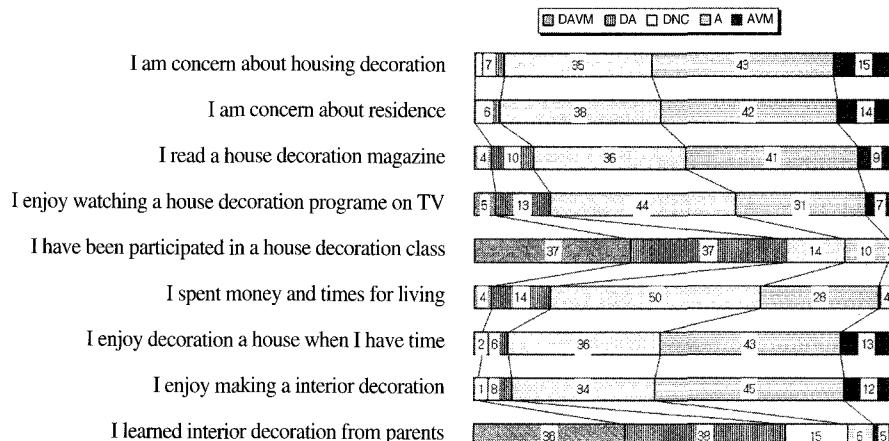
부천지역 주부 일상의 가사행동과 의식을 알기 위하여 의·식·주생활에 관한 27개 항목의 질문을 5단계 평가로 실시하였다. <Fig. 1>은 의·식·주생활 관련 항목의 결과이다.

식생활 관련 사항에서 식품에 관심도는 59%로 있다

고 하였으며 식기에 대한 관심도 50%로 높았다. 식품에 관한 잡지를 본다는 34% 이었으며, TV로 요리프로그램을 본다는 25%가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요리교실에 참가한 일이 있다가 11%이었으며, 금전과 시간을 식생활 분야에 쓴다는 40%가 그렇다고 하였다. 시간이 있을 때 요리를 만드는 것이 48%가 재미있다고 하였다. 부모에게서 요리만드는 것을 배웠다는 29%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련 항목 의식 결과를 일본 주부와 비교해 보면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의생활 관련 사항으로 의상에 관심이 있다는 51%, 모양을 내는데 관심이 있다가 41%로 나타났다. 의류에 관한 잡지 및 TV시청은 33%, 28%로 긍정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양재교실에 참가한 경험은 10%가 있다고 하였다. 의생활분야에 시간을 쓴다는 26%이었으며 양재와 수예가 기쁘다는 32%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편이 집안에서 목수일을 도와주는 것이 66%가 기쁘다고 하였으며, 부모에게 양재와 수예를 배웠는가에서는 25%





&lt;Fig. 1&gt; Behavior consciousness of households.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DNC : Don't car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만 배웠다고 하였다. 시모사카 등<sup>1)</sup>의 일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의상에 관심도는 83%, 모양내는 관심도는 86%, 양재와 수예가 기쁘다는 82%, 부모에게서 양재나 수예를 배웠다는 6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나라 주부와 비교시 일본 주부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즐겨하며 부모의 수작업이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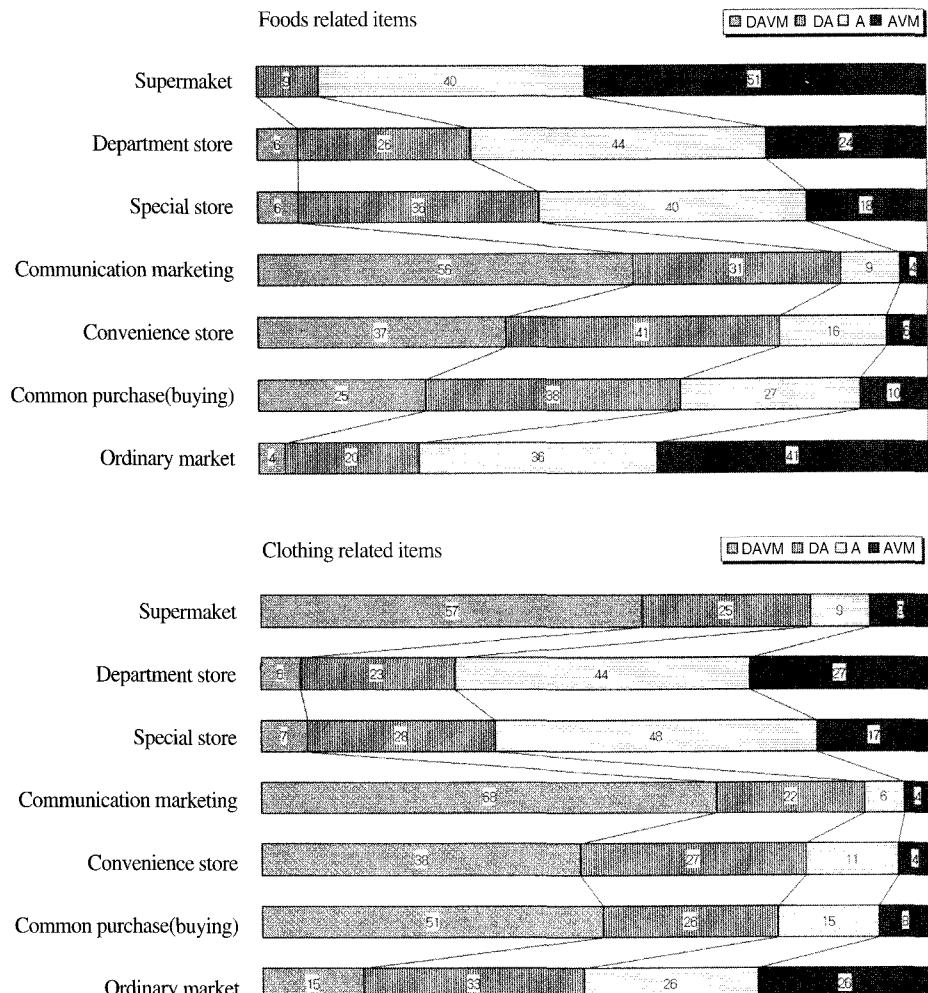
주생활 관련 사항에 관한 결과이다. 주택장식에 관한 관심은 58%로 높았으며, 주택 꾸미는데 관심은 56%, 실내장식에 관한 잡지를 보는 것도 50%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반하여 실내장식 교실에 참가한 경향은 12%가 있다고 하였다. 실내장식에 관한 TV 시청과 금전과 시간을 쓰는 것은 38%, 32%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있을 때 집안 꾸미는 것이 재미있다는 56%로 실내장식품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는 57%로 높았다. 부모에게서 실내장식 꾸미는 것을 배웠다는 11%로 낮았으며 반면에 74%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부들의 관심도는 식생활(58%), 주생활(58%), 의생활(51%)의 순서이었으며, TV 및 잡지를 통한 관심도는 의·식·주 모두 그저그렇다가 컸다. 정식으로 교육받은 것은 주생활(12%), 식생활(11%), 의생활(10%)의 순서이었으며, 재미있고 기쁜것도 주생활(57%), 의생활(32%), 식생활(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서 직접 배운 분야는 식생활(29%), 의생활(25%), 주생활(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부모에게서 배운 분야로는 식생활(42%), 의생활

(40%)이었으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정보다 일본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 3. 구매장소

부천 주부들의 식료품과 의류품의 구매장소에 관한 결과이다. 식료품의 구매장소는 슈퍼마켓(91%), 재래시장(77%), 백화점(68%), 전문점(58%), 공동구입(37%), 편의점(22%), 통신판매(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품의 구매장소는 백화점(71%), 전문점(65%), 재래시장(52%), 공동구입(23%), 슈퍼마켓(18%), 편의점(15%), 통신판매(10%)로 나타났다. 시모사카 등<sup>1)</sup>이 일본 오비히도리시를 중심으로 조사한 일본 주부들의 구매장소를 보면 식료품의 경우 슈퍼마켓(77%), 전문점(72%), 백화점(56%), 공동구입(46%), 편의점(21%), 통신판매(19%)의 순서로 나타났고, 의류품의 경우 백화점(87%), 슈퍼마켓(79%), 전문점(72%), 통신판매(31%), 편의점(18%), 공동구입(1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부와 일본 주부의 구매장소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 식료품 구입장소에서 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백화점과 편의점 이용률이 높게나타났으며 통신판매도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sup>2)</sup>등은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 식품 이용 횟수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 관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횟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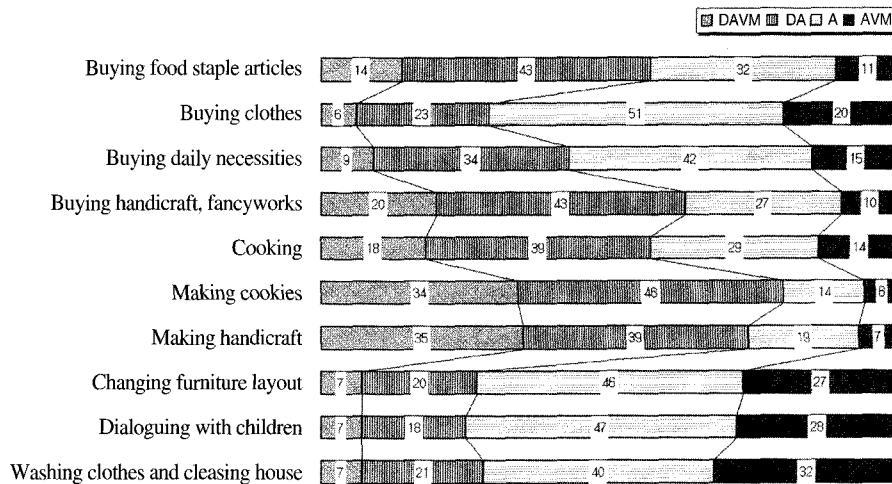
&lt;Fig. 2&gt; Purchasing place of foods and clothes.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 4. 가사행동과 주부의 스트레스해소 의식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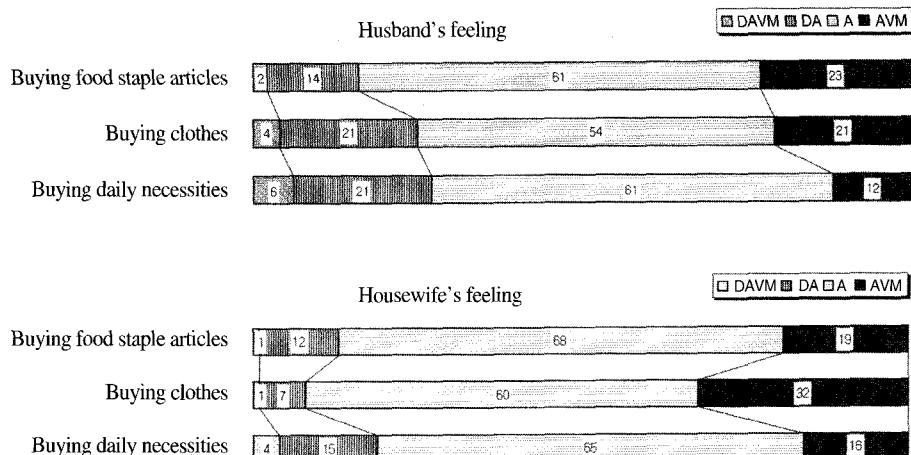
<Fig. 3>은 주부들의 가사행동과 주부의 스트레스 해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스트레스 해소되는 정도를 가사행동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와 대화를 한다(75%), 방의 배치 및 가구모양을 바꾼다(73%), 세탁 및 청소를 한다(72%), 의류를 구입한다(71%), 일용품을 산다(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주부를 대상으로 가사행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여성의 경우 의류품 구입(75%), 방배치 바꾸기(58%), 수예품사기(46%), 수예품 만들기(41%)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대화로 스트레스를 푼다(11%)는 아

주 낫게 나타나 우리나라 주부와 우선 순위 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sup>1)</sup>. <Fig. 4>는 구매행동에 관한 의식으로 남편과 주부가 느끼는 감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대체적으로 주부와 남편 모두 물건을 구입할 때의 기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식료품과 일용품 구입시 주부와 남편의 기분은 별차이 없으나, 아내가 의류를 구입할 경우 주부는 92%가 기분이 좋은데 반하여, 남편의 기분은 75%만 기쁘다고 하였다. 시모사카 등<sup>1)</su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매시 일본 남편은 식료품 (42%), 의류품 (36%), 일용품 (39%)가 긍정적이며, 일본주부는 식료품 (84%), 의류품 (93%), 일용품 (81%) 기분이 좋다고 나타내었다. 한국 남편이 구매 행동에서 느



&lt;Fig. 3&gt;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behavior and stress breaking.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lt;Fig. 4&gt; Consciousness of purchasing behav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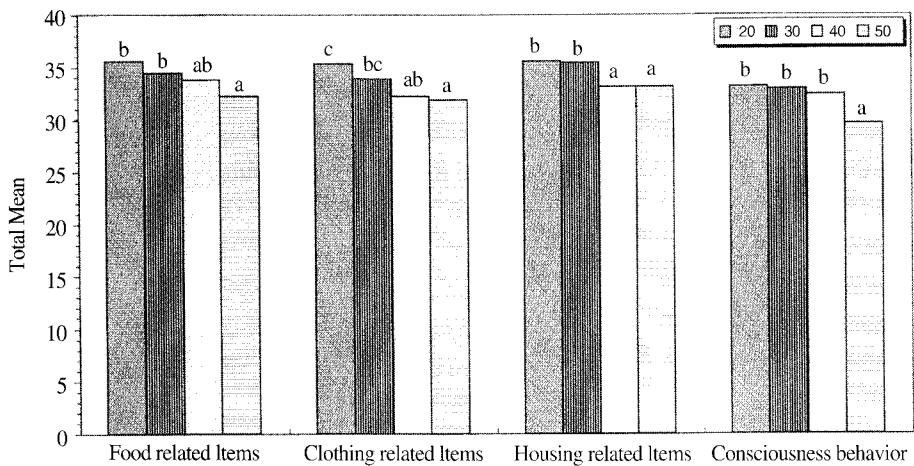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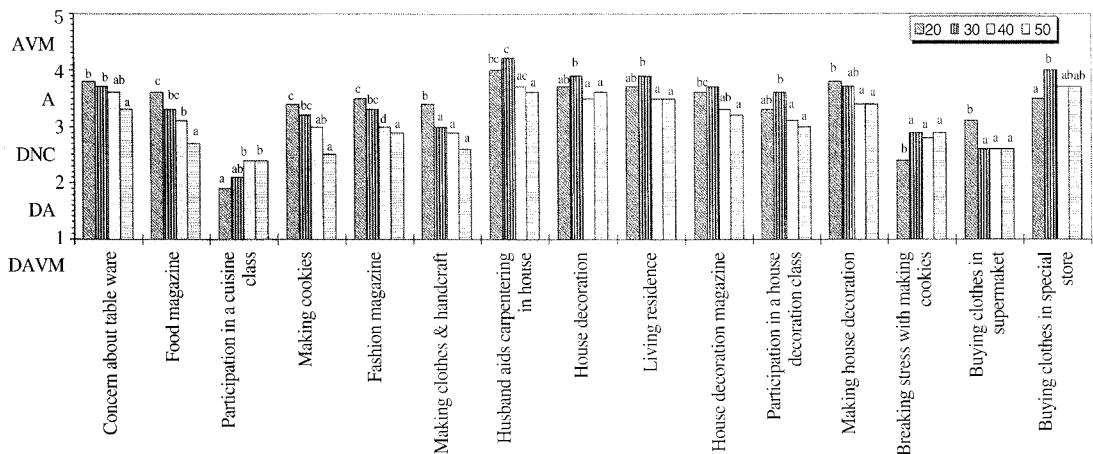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끼는 긍정적 기분이 일본 남편보다 높았으며, 아내가 의류를 구입할 때 일본 남편의 경우가 한국 남편보다 비긍정적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 5. 연령과 가사의식과의 관계

<Fig. 5>는 의·식·주 생활 관련 전체항목과 연령사

이의 관계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비교하였다. 먼저 식생활 관련 전체 항목과 연령 사이를 보면 관심도는 20, 50대가 유의차가 있으며, 젊을수록 생활 전반 분야에 관심도가 높았다. 식생활, 의생활 면에서 20대와 50대와는 유의의 차를 나타내었고, 주생활면에서는 20-30대와 40-50대 서로 다르다고 나타났다. 주부들의 가사의식 행동을 보면 20, 30, 40대는 같았으며, 50대와

<Fig. 5> Relationship between total related items and age ( $p<0.05$ ).<Fig. 6>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consciousness and age ( $p<0.01$ ).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DNC : Don't car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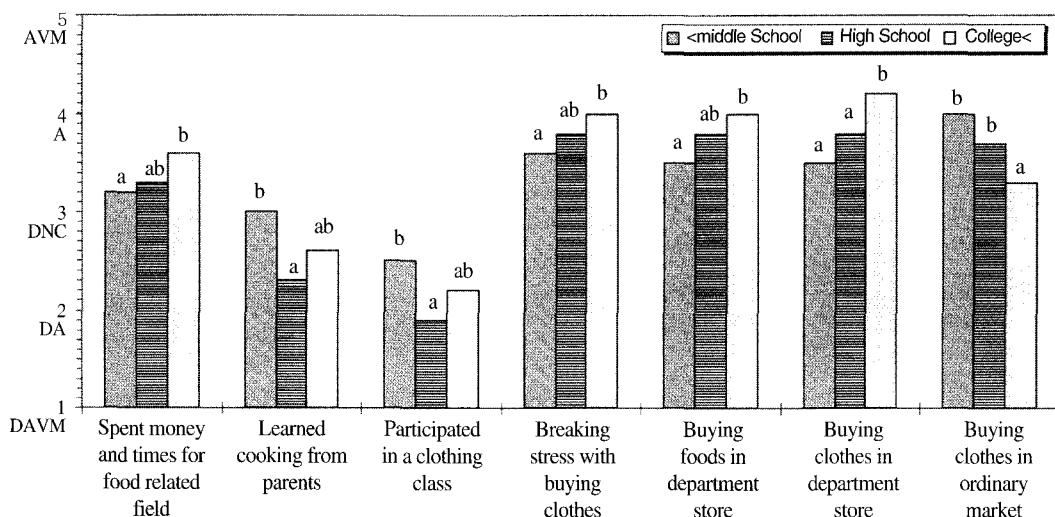
는 서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05$ ).

<Fig. 6>은 의·식·주의 각 항목과 연령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식생활에서 식기에 관심도는 20대, 30대는 50대보다 관심이 높았으며 식품 관련 잡지 관심도도 20대, 30대, 50대 모든 연령에서 유의의 차이가 있었다. 일본 주부의 경우 식기류 관심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의 차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sup>1)</sup>. 요리교실에 참가한 경험은 40대, 50대가 20대 보다는 높았다. 과자를 만드는 것이 즐겁다에서는 20대, 30대와 50대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젊을수록 과자 만드는 것을 즐겁다고

나타내었다.

의생활에서는 양재와 수예하는 것이 기쁘다는 20대에서는 높았으며 30대, 40대, 50대는 서로 유의의 차가 없었다. 남편이 집에서 목수일을 도와주는 것이 기쁘다는 30대와 50대는 유의의 차이가 있었으나 30대인 경우 이 항목이 어느 항목보다도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주생활에서 주택 장식에 관심도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주택 꾸미는데 관심도도 30대가 가장 높았다. 실내장식 관련잡지도 30대가 높았으며, 실내장식 교실에 참가한 것도 30대가 높았다. 실내장식을 만드는 것은

<Fig. 7>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consciousness and education level ( $p<0.05$ ).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DNC : Don't car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20대와 40, 50대는 차이가 있었다.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항목에서 모든 항목에 유의의 차이가 없었으나, 과자를 만들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항목에서 20대 보다는 30, 40, 50대가 해소된다고 하였다. 의류 구매 장소에 따른 연령면을 보면 20대 일수록 의류구매 장소를 실용적인 슈퍼마켓 이용을 많이 하였으며, 의류 전문점에서 구매는 30대 주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교육수준과 주부의식과의 관계

<Fig. 7>은 가사의식과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시간과 금전을 식품관련 부분에 쓰는 정도는 중학교 교육 수준보다 대학졸업 주부가 더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부모에게서 요리하는 것을 배운 것은 중학교 교육수준 주부가 고졸주부보다 많이 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재교실에 참여한것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류를 사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식품 구입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백화점을 많이 이용한다고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류구입을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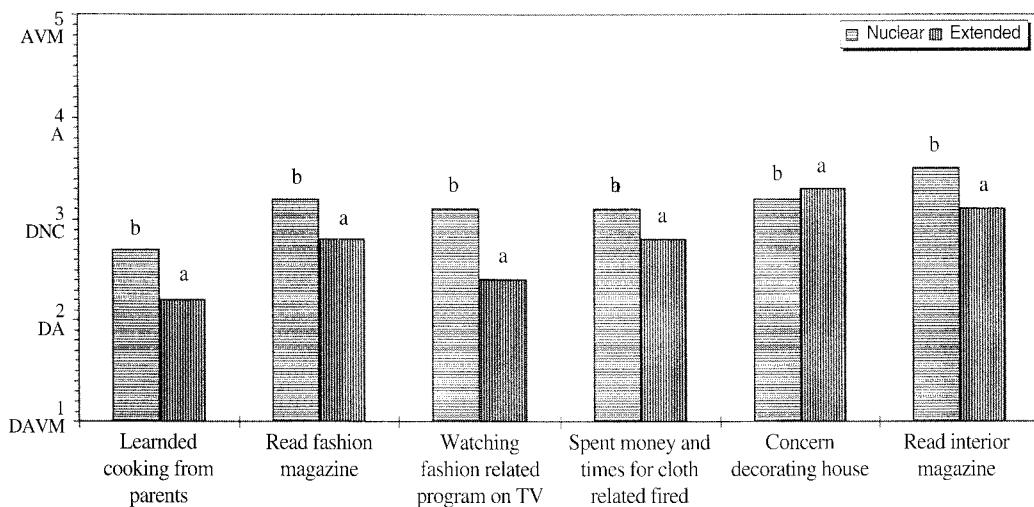
## 7. 가족형태와 주부의식과의 관계

<Fig. 8>은 가족형태와 가사 의식에 관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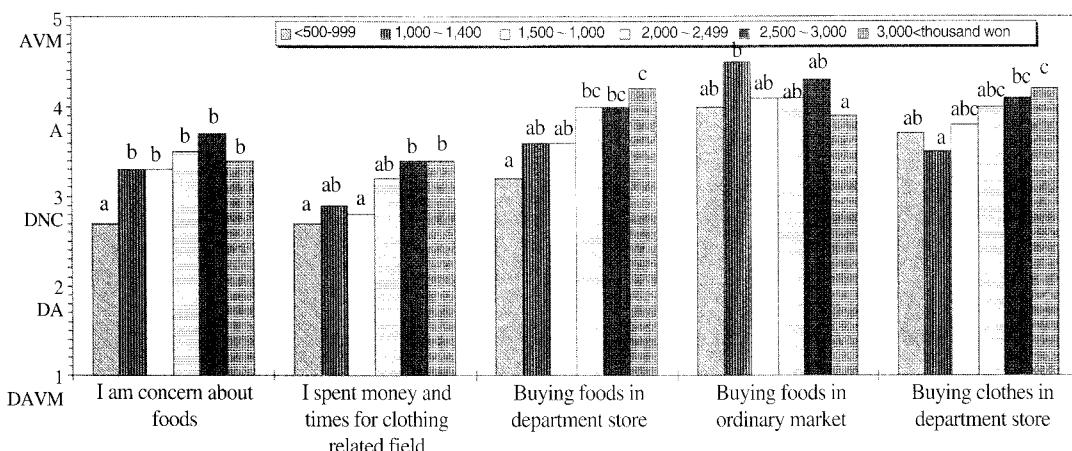
부모에게서 요리를 배웠다, 의상잡지를 읽는다, 패션정보를 TV에서 시청한다, 의상관련 분야에 시간과 금전을 쓴다, 실내장식 잡지를 본다 등에 핵가족 주부가 확대가족 주부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05$ ).

## 8. 월수입과 주부의식과의 관계

<Fig. 9>는 월수입과 주부의식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모양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항목은 월수입 100만원 이상 주부들 모두가 관심이 있다고 했으며, 월수입 100만원 미만 주부는 별 관심이 없다고 나타내었다. 시간과 금전을 의류분야에 할애하느냐?라는 질문에 월수입 250만원 이상 주부는 긍정적인 반면, 월수입 100만원 이하 주부는 그저 그렇다고 하였다. 식품을 백화점에서 산다는 항목은 월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주부는 매우 긍정적이며 월수입 100만원 이하는 비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을 재래식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면 월수입 300만원 이상인자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주부는 높게 나타났다 ( $p<0.05$ ). 이 등<sup>3)</sup>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지향적인 여가활동, 자기개발적 여가활동 및 신체적 여가활동에 있어서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며, 월수입이 낮을수록 모든면에 소극적인 의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윤 등<sup>4)</sup>은 사회 계층별 생활양식 유형 분석에서 상층의 생활양식은 의·식·주 여가 면의 모

<Fig. 8>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consciousness and family type ( $p<0.05$ ).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DNC : Don't car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Fig. 9>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consciousness and income ( $p<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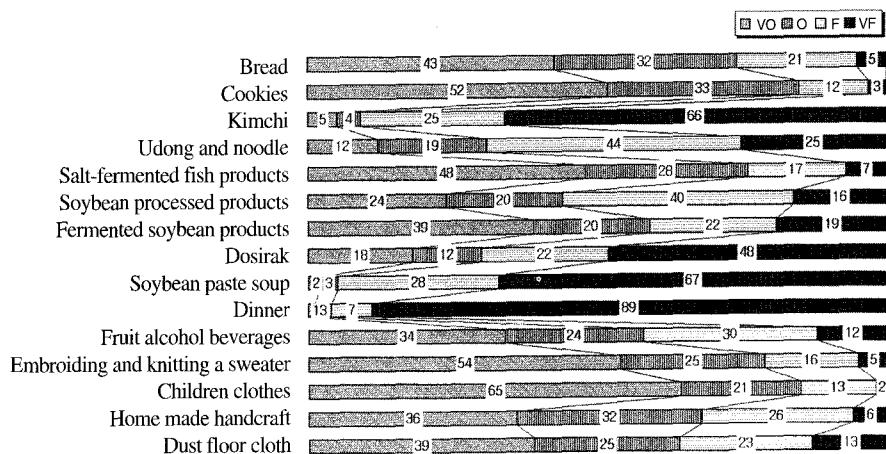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DNC : Don't car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9. 식품조리 빈도수와 주부의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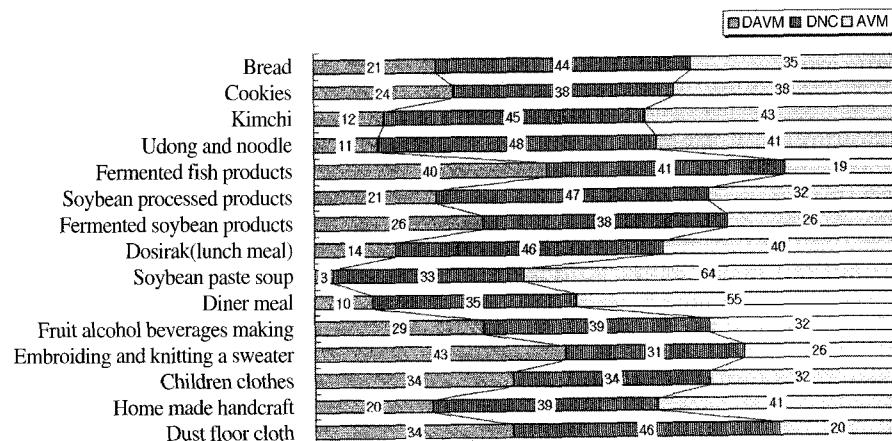
Toivonen은 식품소비 형태와 사회계층별 조사를 하였다. 식품 소비형태는 수입, 주택형태, 교육정도 및 사회계층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sup>5)</sup>. 부천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식품을 만들어 먹는 조리 빈도수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조리 빈도수가 높은 것은

김치(66%), 된장국(67%)과 저녁준비(89%)로 높게 나타났으며, 빈도수가 낮은 것은 과자만들기(52%), 뜨개질한다(54%)와 자녀옷을 만든다(65%)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Fig. 11>은 식품을 만들 때 주부의 의식을 나타낸 그림이다. 김치 만들기(43%), 우동이나 국수 만들기(41%), 점심 도시락(40%), 된장국(64%), 저녁준비(55%), 수공예 만들기(41%)가 매우 기분이 좋다고 나타낸 반면에, 젓갈 담그기(40%), 수예 및 스웨터 짜기(43%)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나타



&lt;Fig. 10&gt; Making frequency of household items.

※ VO : Very occasionally, O : Occasionally, F : Frequently, VF : Very frequently



&lt;Fig. 11&gt; Behavior consciousness of housew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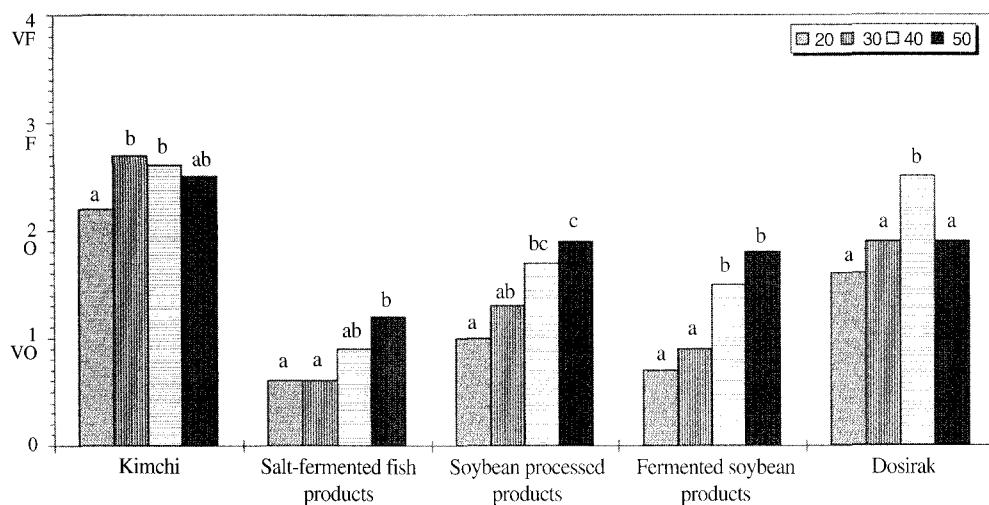
※ DAVM : Disagree very much, DNC : Don't care, AVM : Agree very much

났다. 특히 여러 항목 중에 된장국 만들 때 기분이 좋다는 64%로 가장 높았으며, 저녁만들기가 55%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주부의 경우, 된장국 만들 때 기분이 좋다는 65%로 저녁준비는 62%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만들 때의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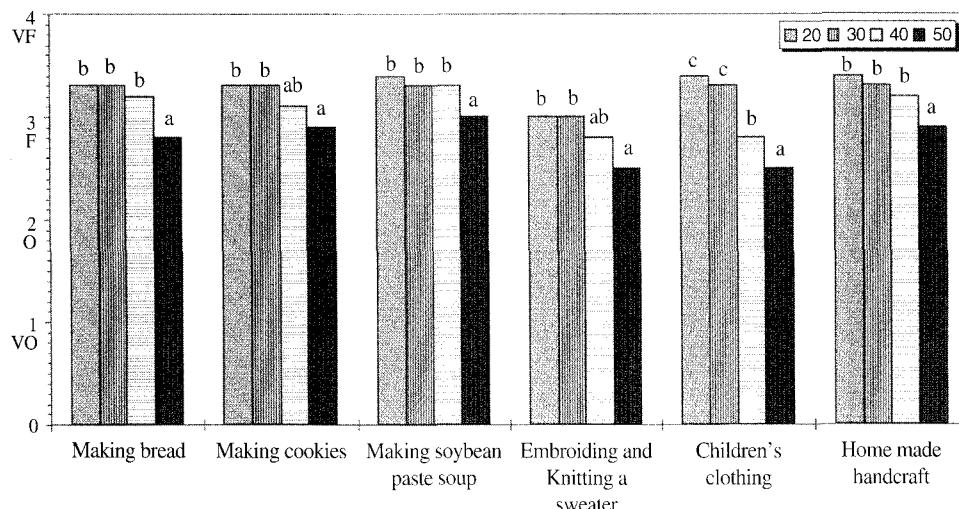
<Fig. 12>는 만드는 빈도수와 연령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김치 만들기는 20대가 30대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선제품 만들기, 콩제품식품 만들기, 장류는 연령이 높을수록 빈도수가 컸다. 도시락 만드는 빈도수는 40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콩류가공식품, 콩 발효식품 만들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즐

겨 만드는 식품으로 나타났다.

<Fig. 13>은 만드 때의 행동의식과 연령과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빵만들 때, 과자 만들 때, 된장국 만들 때, 수예품과 스웨터 짜기, 옷 만들기와 가정용 소품 만들 때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4>는 발효식품 만드는 빈도수와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산발효제품, 콩가공식품, 콩발효식품, 가정용소품 만들기는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만드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Fig. 15>는 만들 때 행동의식과 교육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과자 만들기와 자녀옷 만들기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Fig. 12> Relationship between making frequency and age ( $p<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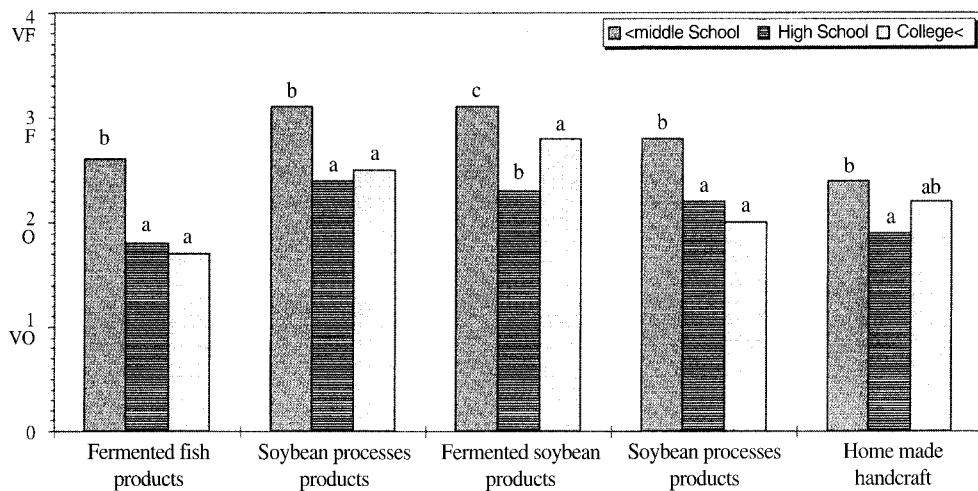
※ VO : Very occasionally, O : Occasionally F : Frequently, VF : Very frequently

<Fig. 13>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consciousness and age ( $p<0.05$ ).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A : Agree, AVM : Agree very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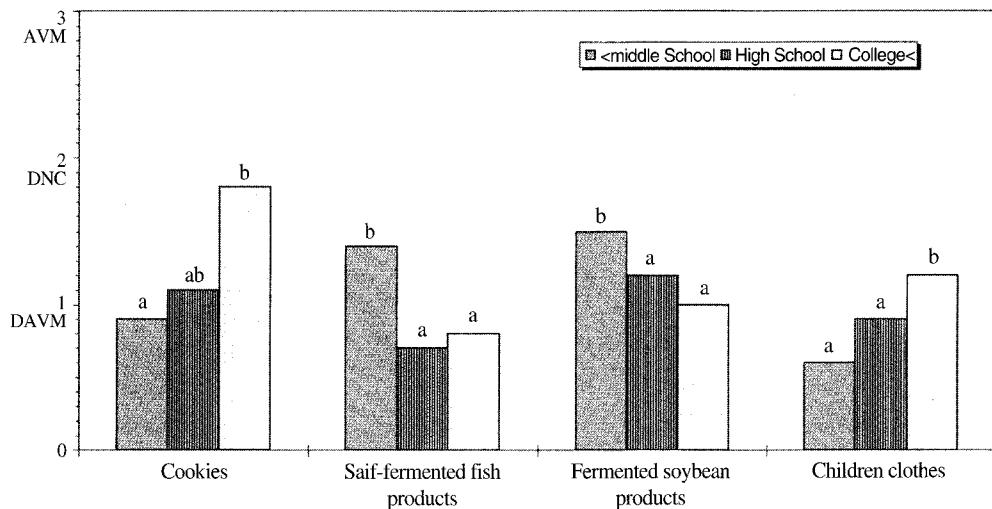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수산 발효제품과 콩류 발효제품 만들기는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16>은 만드는 빈도수와 가족형태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모든 항목이 핵가족에서 확대가족보다 만드는 빈도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발효식품의 경우 확대가족 주부가 핵가족 주부보다 만드는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p<0.05$ ). <Fig. 17>은

생활만족도와 행동의식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시락 만들기, 저녁식사 만들기, 자녀옷 만들기, 가정용 소품 만들기의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조<sup>6)</sup>에 의하면 주부의 82%가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을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로부터 배운다고 하였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된 동기로 60%의 주부가 가정교육을 통해서라고



<Fig. 14> Relationship between making frequency and education level ( $p<0.05$ ).

\* VO : Very occasionally, O : Occasionally, F : Frequently, VF : Very frequently



<Fig. 15> Relationship between making behavior consciousness and education level ( $p<0.05$ ).

\* DAVM : Disagree very much, DNC : Don't care, AVM : Agree very much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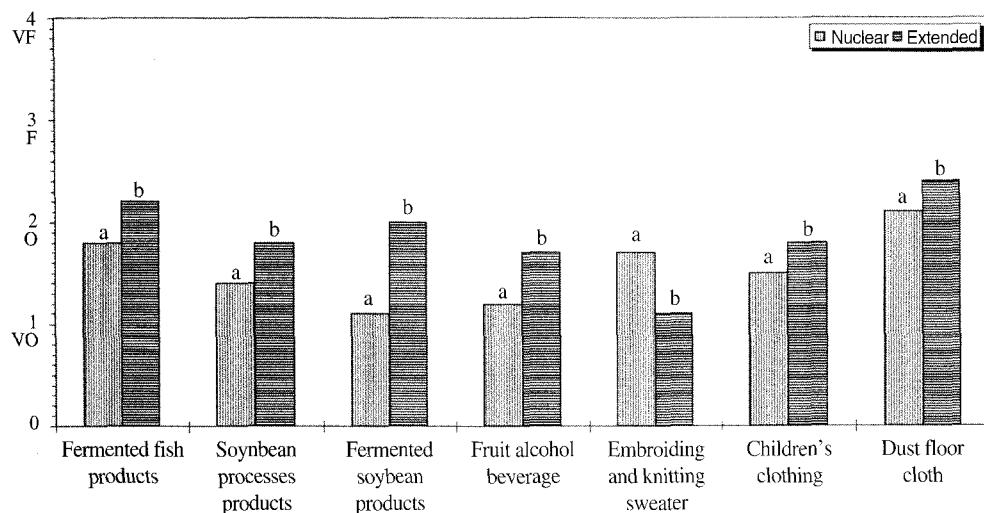
## V. 요약 및 결론

부천지역 주부의 식문화의식과 가사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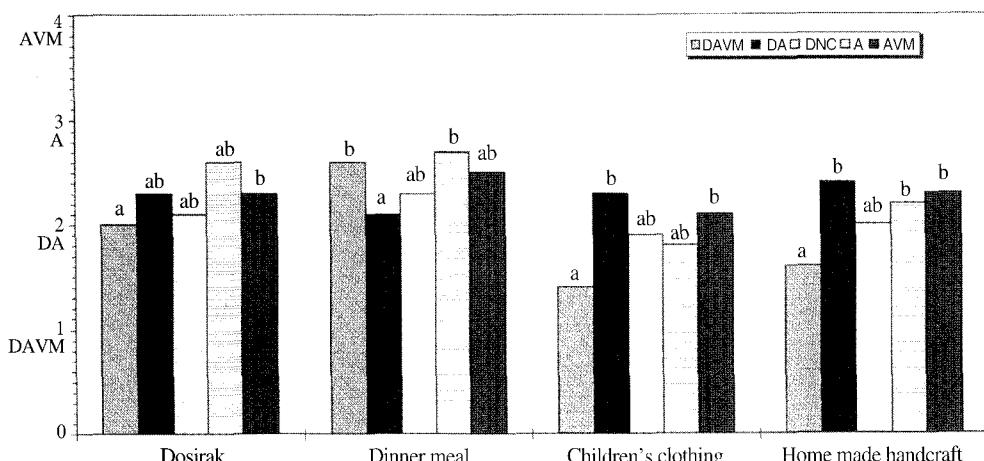
1. 주부들의 관심도는 식생활(59%), 주생활(58%), 의

생활(51%)의 순서이었으며, 취미교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은 주생활(12%), 식생활(11%), 의생활(10%) 순서이었으며, 재미있고 즐거운것은 주생활(57%), 식생활(31%), 의생활(32%)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게서 배운 분야는 식생활(29%), 주생활(11%), 의생활(25%)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식료품 구매 장소는 슈퍼마켓(91%), 재래시장(77%), 백화점(68%), 전문점(58%), 공동구입(37%),

<Fig. 16> Relationship between making frequency and family type ( $p<0.05$ ).

※ VO : Very occasionary, O : Occasionally, F : Frequently, VF : Very frequently

<Fig. 17>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degree ( $p<0.05$ ).

※ DAVM : Disagree very much, DA : Disagree, A : Agree, VAM : Agree very much

편의점(22%), 통신판매(13%)로 나타내었다. 의류품의 구매장소는 백화점(71%), 전문점(65%), 재래시장(52%), 공동구입(23%), 슈퍼마켓(18%), 편의점(15%), 통신판매(10%)로 나타났다.

3. 주부의 스트레스 해소의식의 결과를 보면 자녀와 대화한다(75%), 방배치 및 가구모양을 바꾼다(73%), 세탁 및 청소를 한다(72%), 의류를 구입한다(7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식생활 관련 전체항목과 연령사이를 보면 20대, 30

대는 50대와 다르며, 의생활 관련항목은 20대와 50대 사이에 유의의 차이가 있었으며 주생활 분야는 20-30대와 40-50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의식 행동을 보면 20, 30, 40대와 50대와는 서로 유의의 차가 있었다( $p<0.05$ ).

5. 의·식·주의 각 항목과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20대에는 주로 식생활에 관심도가 높았으며, 30대는 주생활 관련 항목에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6. 교육수준과 주부의식을 보면 중졸과 대졸에는 유의 차가 있었다. 교육수준 정도가 높을수록 돈과 시간을 식품에 쓴다, 의류구매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의류를 백화점에서 구매한다. 식료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한다고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재래식 시장 이용을 많이 한다고 나타났다( $p<0.05$ ).
7.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일 때 주부의 여유가 높았으며, 수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백화점 이용율이 높았다( $p<0.05$ ).
8. 조리 빈도수가 높은 항목은 저녁준비(88%), 된장국(87%), 김치(66%)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식을 보면 된장국만들기(64%), 저녁준비(55%)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조리의 빈도수를 보면 김치, 도시락, 두류 가공품, 두류 발효식품, 젓갈류의 순서로 나타났다( $p<0.05$ ).
9. 주부의 연령과 가사의식과의 관계를 보면 빵만들기, 과자 만들기, 된장국 만들기, 수예와 스웨터짜기, 자녀옷 만들기, 수공예품 만들기는 나이가 젊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전통식품을 조리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만들기와 자녀옷만들기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컸으며 전통식품 만들 때의 의식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을수록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p<0.05$ ).
10. 가족형태와 조리 빈도수를 보면 전통발효식품 만드는 것, 자녀옷 만들기, 결례 만들기 등의 수 작업이 많이 드는 것은 핵가족 주부보다 확대가족 주부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생활 만족도가 를수록 도시락 만들기, 저녁식사 만들기, 자녀 옷 만들기, 수공예품 만들기가 기쁘다고 나타났다 ( $p<0.05$ ).

### ■참고문헌

- 1) 下坂智惠, 下村道子. 主婦の意識と家事行動との関係. 日本調理學會誌, 29(2), 125-131, 1996
- 2) 김혜영, 최선희, 주선의. 편의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1(1), 71-82, 1996
- 3) 이정연, 심미영, 김영숙.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 35(3), 287-305, 1997
- 4) 윤복자, 윤정숙, 박영순, 김혜정, 김영주. 서울 거주자의 계층별 생활양식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 32(4), 241-250, 1995
- 5) Toivonen, T. Food and social class. J.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1, 329-347, 1997
- 6) 조연숙. 전통음식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연구 -대구중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